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3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윤리학의 목표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목표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① 도덕적 진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②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의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
④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⑤ 현실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거주란 낯선 공간 안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삶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외부 공간에 존재하는 위협을 막아 주는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움을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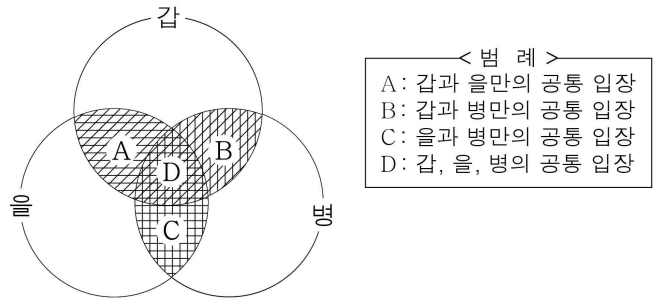
① 거주는 공간 속에서 친근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다.
② 거주는 인간 삶의 바탕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
③ 인간은 거주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④ 집은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⑤ 거주는 낯선 공간 안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태아는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임신부와 달리 태아가 지니는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 을 :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① 갑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② 을은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태아를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닌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 보 기 >

ㄱ. A :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ㄴ. B : 모든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ㄷ. C :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ㄹ. D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며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는 것[徒]이다.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
> 을 : 태어남으로 인하여 늙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은 마치 쉬지 않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

① 갑은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삶과 죽음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업(業)은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테러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억압과 착취와 같은 간접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
> 을 : 평화 상태가 정초되려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① 갑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② 갑 :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③ 을 :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④ 을 :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⑤ 갑, 을 :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현대 기술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 지구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던 전통 윤리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청된다.

< 보 기 >

ㄱ. 현대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ㄴ. 현대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ㄷ. 현대 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ㄹ.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
> 을 : 원조의 의무는 원조 대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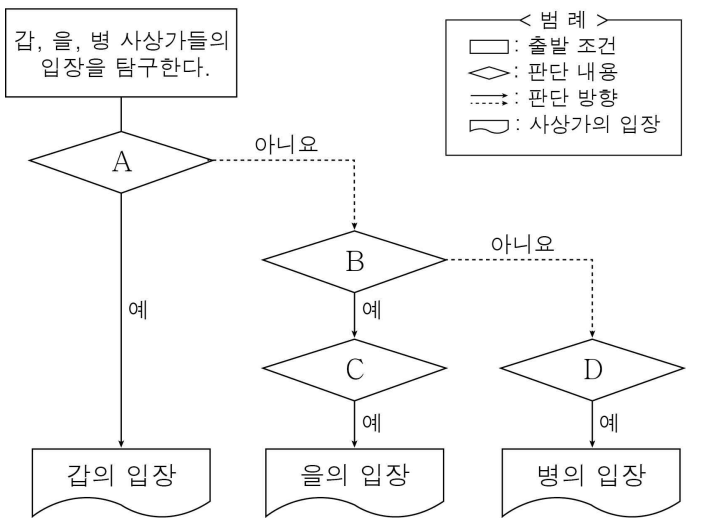
① 갑 : 원조 대상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갑 :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③ 을 : 원조 대상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 을 :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하다.
⑤ 갑, 을 :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소유 자격의 여부는 소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된다.
>
> 을 :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
> 병 :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나)



① A :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는 정의로운가?
② B :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가?
③ B : 빈민의 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④ C :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
⑤ D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져야 정의로운 사회인가?

10.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전쟁의 도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전쟁의 도덕성이 두 부분 즉 전쟁 개시가 정의로운가와 전쟁 수행이 정의로운가로 나뉜다는 데 있다. 이 두 부분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다.
>
> 을 : 국제 사회는 무정부 사회이다. 어떤 윤리적 기준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까지 자국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ㄴ. 자국 안보를 위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ㄷ. 침략 전쟁 이외에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있는가?
ㄹ. 전쟁 목적과 관계없이 전쟁 수단이 정당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우리가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
> 을 :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행위보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야 한다. 효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안이 되는 규칙들 중에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는 규칙을 찾고 그것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① 갑은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본다.
③ 을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을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보편적인 도덕 규칙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지적 창작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정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부가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의 공동 자산인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을 : 지식 생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창작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작자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표시 등의 조건 하에 누구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갑 :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보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을 : 모든 정보는 공공재이며 대가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ㄷ. 을 : 정보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 저작자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
> 을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양심적인 행위이고,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① 갑 :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② 갑 : 개인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③ 을 :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을 :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4.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고대의 어느 사상가는 "정의는 일종의 비례이며, 비례는 비율의 동등성이다.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는 몫은 그들의 관계에 비례할 때 정의롭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A와 B가 맺는 관계가 C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고 할 때, 이를 치환하면 A와 C가 맺는 관계는 B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 그래서 A와 C의 합과 B와 D의 합은 그 관계가 같다. 나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재화를 나눔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응분의 몫보다 더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 옳지 않다.

< 보 기 >

ㄱ.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몫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ㄴ. 사람들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ㄷ. 산술적 비례에 따라 모두가 중간의 몫을 갖지 못하므로
ㄹ.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 갑 : 어떤 행위는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형벌에 대한 요구를 창출할 것이다.
>
> 을 : 누군가 타인을 살해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
> 병 :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수형자에게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의 방법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③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	아니요	예	예
④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4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한편 도덕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익과 권리의 합리적 조정은 역사와 전통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불의나 은밀한 강제력을 조정하기 어렵게 한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에 부합되는 강제력을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을 밝혀줌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①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포함할 수 없다.
③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
④ 집단 간의 힘이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영구 평화가 달성된다.
⑤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소비의 목적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 갑 : 아닙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을 : 그러한 주장은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① 시장 경제 논리는 비용 대비 최대 편익을 강조하는가?
② 합리적 소비만으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③ 소비 활동을 통해서 자원 남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가?
④ 소비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하는가?
⑤ 자원 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가?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갑 : 음악이 화평해야 백성이 화합하며 방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옛 성왕은 "음란한 노래와 사악한 음악이 좋은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을 : 시가(詩歌) 교육은 영혼 안에 있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들을 일깨워야 한다. 시인들은 좋은 성품의 상(象)을 작품 속에 새겨 놓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작품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① 갑 : 음악은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갑 : 음악은 정치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③ 을 :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시가 교육이 필요하다.
④ 을 : 미적 가치의 추구가 진리 탐구에 도움이 된다.
⑤ 갑, 을 : 예술 활동에 대한 외적 규제가 필요하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신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召命)으로 주셨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순종하면 모든 일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 을 :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자질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함에 따라 노동의 소외가 심화된다.

< 보 기 >

ㄱ. 갑 :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다.
ㄴ. 갑 : 신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ㄷ. 을 :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분업에 참여해야 한다.
ㄹ.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갑, 을, 병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 성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사랑이므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언제나 허용될 수 있다.
> 을 :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며, 책임 의식을 지닌 성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적 관계는 용인되어야 한다.
> 병 : 성은 결혼 이후에 자녀 출산과 관련을 가질 경우에만 도덕적이고 온전한 것이 된다.

◎ 학생 답안

갑은 ㉠ <u>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u> 을은 ㉡ <u>사랑이 없는 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며,</u> 병은 ㉢ <u>사랑을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본다.</u> 한편 ㉣ <u>갑, 을은 병과 달리 결혼과 무관한 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u> ㉤ <u>병은 갑, 을과 달리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